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2023~2024
친교로 하나 되어



2024
10 / 06

[나해] 제2450호
연중 제27주일

소리주보QR코드



2024년 교구 도보 성지순례(진목정) ▶

대구주보



입당송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제1독서 창세 2,18-24

화답송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제2독서 히브 2,9-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 10,2-16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가정복음화국 차장
고태권(그레고리오) 신부

말씀 KEY WORD

한 몸

(미아 사룩쓰 $\mu\iota\alpha\ \sigma\acute{\alpha}\rho\kappa\varsigma$)

한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일치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가 되는 개방과 초월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로마 11,36 참조). 부부의 인연은 그런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고귀한 성소(聖召)입니다.

혼인, 떠남의 여정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유다 전통을 이야기하며,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며, 여성은 사람이 아닌 어떤 물건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바리사이들에게 아내는 버려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창조 이야기’로 응수하십니다.

특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임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버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떠남은 정서적, 물리적, 경제적 등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은 분명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둘지는 않되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셈이 빨라야 살아남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대화보다는 계산기가 먼저 나옵니다. 어느 피정 때 만났던 남편을 먼저 여윈 자매님은 “남편을 사업 파트너처럼,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해줄 때만 좋아했던 먼저 떠난 남편에게 미안하고, 불쌍하다.”라고 울먹였던 모습이 늘 잔상처럼 남아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 배우자의 모난 모습, 상처가 보기 싫다고 바리사이들처럼 버리려고만 들지 맙시다. 오히려, 내 배우자의 어두운 상처마저도 안아주고, 사랑하려 노력하며 혼인의 여정을 떠납시다.

사랑한다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랑은 결심이다.”라고 합니다.

광야 같고,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혼인을 결심하고 살아가는 부부 여러분의 여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사도좌 정기방문(Ad Limina)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와 교구 총대리 장신호(요한보스코) 주교를 비롯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 23명은 9월 16일(월)부터 22일(일)까지 로마 사도좌(교황청)를 방문했다. 한국 주교단은 9월 20일 오전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했다. 이번 알현은 참가 주교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교황과 면담하고 주교단 전체로도 만났던 2015년 사도좌 정기방문과 달리 주교단 전체가 한차례 교황과 만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16일부터 21일까지 교황청 주교대의원회의의 사무처, 성직자부, 시성부, 복음화부(첫복음화와 신설개별교회 부서), 평신도가정생명부 등을 방문했고, 17일에는 교황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했다. 20일에는 바티칸 정원에서 열리는 '평화의 모후 모자이크 성화' 축복식에 참석했고, 22일 오전 10시 30분 로마 한인 성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압량AD대학생센터 '제9회 AD페스티벌,'

교구 전체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9회 AD 페스티벌이 9월 28(토)부터 29(일)까지 압량AD대학생센터와 압량대학생거점성당 일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마태 5,12)라는 주제로 열렸다.



가실성당, 성전 봉헌 100주년 기념미사 봉헌

9월 29일(일) 오전 10시 가실성당(주임 : 박진형 비오 신부) 성전 봉헌 100주년 기념미사가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됐다. 특히 가실성당은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한 전례 도구와 제의, 성 미술품 등을 소장하고 있어, 이번에 역사전시관을 새롭게 축복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을 살아온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무엇이랄도 합시다

기상청은 '2024년 7월 기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7월 평균 최저기온은 23.3℃로 평년(21.2℃)보다 2.1℃ 높았습니다. 이는 1973년 이래 7월 평균 최저 기준상으로 역대 2위(1위 1994년 23.4℃)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밤 기온이 25℃로 유지되는 열대야 일수는 8.8일(역대 1위)로 평년(2.8일)보다 약 3배가량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수량은 383.6mm로 평년(245.9~308.2mm)보다 많았습니다. 이를 이상 폭염이 지속되는 날 수도 늘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를 이상 연속으로 발생한 폭염 일수는 40.56일로, 이는 20년 전(2004~2013년)년 14.68일 대비 2.7배 이상 폭염의 지속도가 증가하고 있고, 폭염의 강도도 더 세졌습니다.

여름 하늘, 적운(積雲, 더미구름)을 한낮에 많이 만났습니다. 적운은 수직으로 여름 한낮에 발달하는 구름으로 썬구름 또는 뭉게구름이라고 불립니다. 햇빛에 비친 부분은 하얗게 빛나고, 구름 밑면은 어둡고 편평합니다. 이 구름의 입자는 대부분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고 구름이 커지게 되면 천둥과 번개가 치고 소나기로 변합니다. 특히, 이 구름이 발달하여 적란운(積亂雲)이 되면 저녁에 산이 많은 특정 지역의 길을 운전하고 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국지성 호우로 엄청나게 무서운 비가 됩니다. 여름밤 운전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듯 최근 폭염은 높은 습도를 동반합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기온뿐 아니라 습도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습구온도'(31도가 한계점)는 습도를 반영한 온도인데, 습구온도가 35도가 넘어가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사람도 짐승도 땀과 호흡을 통해서 속 열을 적당하게 식혀야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마나 몸에서 흐르는 땀은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몸속 열을 데리고 나와 몸 밖에서 말리면서 데워진 몸 온도를 공기 중으로 날려 보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몸온도는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데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는 이러한 자연 순환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땀을 흘리더라도 땀이 마르지 않고 피부에 축축하게 젖은 상태 그대로 있으면 체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치 대기의 열돔 현상처럼 몸에 열이 딱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었을 경우, 제일 먼저 땀을 흘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혹은 최후의 수단으로 식은 비지땀을 마치 비가 오듯 자신도 모르게 흘리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러므로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아질 때 온 생태계에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2024년 여름,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폭염, 늘어난 열대야 일수, 폭염의 지속, 폭염의 강도, 누적 강수량 증가 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과 온 생태계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 기온이 해마다 더 뜨거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운 줄 몰랐거나 혹은 실내에서는 지낼만하다고, 심지어 시원했다고 느낀다고 말을 했다면, 그리고 '역시 에어컨이 최고야! 에어컨 없이 어찌 살겠노!'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기에너지에 더 의존하며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즉 우리는 지구온난화와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삶으로 힘겹게 겪은 폭염은 이제 단순한 더위가 아닌 것입니다. 대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천천한 바람이 부니 단 하루 만에 날씨 변화가 어찌 이룰 수 있는지, 자연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후재난의 원인 초래자가 우리 자신임을 인정하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무엇이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생태환경 및 농어민사무부장 | 임성호 베네딕도 신부

전기는 석유값의 세배가 든다

3월 8일(목)

그저께 여기에 온 투르뇌 신부가 곧장 판공성사를 주러 떠났다. 페랑 신부가 대구의 회장이 떠나버려서, 그 대신 자신이 최근에 영세를 준 신도(神道)의 승려를 회장으로 삼았음을 알려왔다.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일 일본에서 전교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경솔하게 설명한다면 그것은 외적인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줄리앙 신부가 이곳에 전기가설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기공장에 문의를 했다. 만일에 전기가 석유값 보다 싸거나 같은 비용이라면, 가설비용을 내 부담으로 하고 전기를 가설하려고 하는데, 신부가 가져온 정보가 어찌나 마음에 들던지, 나는 그 정확성에 의심이 갔다. 그래서 조만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와 함께 무세 신부와 내 복사를 파견하려고 한다.

3월 12일(일)

무세 신부가 가져온 전기가설에 대한 정보는 줄리앙 신부의 정보보다 훨씬 좋았다. 하지만 희망을 버려야 한다. 오늘 전기회사에 다녀온 야고버가 터무니없는 시스템에 대한 근거 있는 정확한 해결책을 가지고 왔는데, 전기는 석유값의 세 배가 든다. 이제는 끝난 이야기이다. 샤르즈뵈프 신부가 얼마 전에 나를 찾아와 다음 학기에는 라틴어 강의를 줄리앙 신부에게 맡길 것을 요청했다. 타당하고 필요하기도 해서 나는 승낙했다. 지난 토요일에 그가 줄리앙 신부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신부는 놀라며 반대했고, 또 나를 찾아와서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나는 신부를 격려했다. 오늘 오전에 신부가 다시 찾아와서 신부가 다시 수락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접을 받지 못했고, 또 어떤 일들을 일부러 그에게 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현재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신부 또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3월 13일(화)

영사가 최근의 법과 관련해 퇴역한 군인들이 신고를 하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내 생각에 이 법은 투르뇌 신부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그는 지금 성사집행중이다. 나는 영사에게 그 신부가 성지주일(예수수난성지주일)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무세 신부가 부산으로 떠났다.

손상오 신부의 시편 성가 출간



시편성가는 미사 전례 안에서 말씀으로 선포되는 하느님 구원의 은혜에
 흠송과 찬미와 감사와 탄원으로 응답 드리는 오랜 교회 전통의 기도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손상오 신부의 시편 성가가 새롭게 다듬어 출간될 예정이오니
 전례의 거룩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구입 40,000원 대구가톨릭음악원, (010)8581-2021 ※ 11월부터 주문 받습니다. 저작권, 복사 불허

손상오 신부 시편성가 출판기념 음악회 10월 12일(토) 오후 5시 30분 주교좌 계산대성당

2024년 천주교대구대교구 본당사회복지의 날

일시 | 10. 19(토) 10:00~17:00

장소 | 교구청 내 성김대건기념관

대상 | 본당사회복지위원

내용 | 음악공연, 대리구별 장기자랑, 미니올림픽, 미사 등

신청 | 각 대리구 사회복지회를 통해 본당별 신청 가능



오케스트라 : 성 프롱티에 오케스트라

대구가톨릭여성합창단 창단 35주년 기념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와 함께하는 구노 장엄 미사곡 연주회

대구대교구가톨릭여성합창단, 가톨릭남성싱어즈, 토폭교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합창단

10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주교좌 범어대성당 대성전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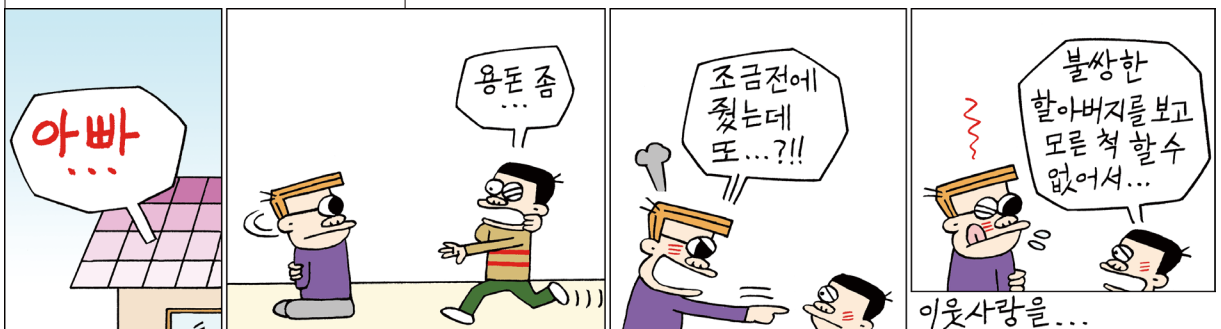
▶ 이찬현 야고보 신부 (2019년 10월 12일 선종)

▷▷▷ 함께 드리는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7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0월 7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0월 7일(월) 11:00 계산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8일(화) 11:30 계산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7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12일(토) 10:00 월성성당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박성규 엘리지오



수도회 | 피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10.13(일) 14:00 그 외는 전화
장소: 부산 부곡동 본원
문의: (010)9353-1773

효령하늘집 피정과 미사

침묵과 관상 / 개인 및 소그룹 피정: 언제나
주일미사 11:00 / 수요치유미사 16:00
문의: (054)382-0091

낙태 후 화해 피정 착한목자수녀회

기간: 10.18(금)~20(일) / 11.15(금)~17(일)
2박 3일 / 회비 없음
장소: 성안드레아 피정의집(인천)
문의: 변바울라 수녀, (010)6637-1366

성베네티도문화영성센터 개관기념 문화피정

공지영 작가: 11.8(금) 15:00~9(토) 13:00
김탁환 작가: 11.15(토) 15:00~16(일) 13:00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참가비: 9만원
문의: (010)6791-0071(문자)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연말연시피정(한라산): 12.30~1.2
성지순례: 11.3~6 / 11.18~21 / 11.24~27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일반 알림 | 기타

바로로팔 문화영성프로그램

그레고리오성이 기초: 10.12~(토) 4주 11:00
수요피정: 빛의 신비 10.16(수) 13:00~16:00
카프카와 구원서사 10.19~(토) 2주 13:00
소화데레사영성 정재성신부 10.19(토) 15:00
신청: (010)6681-5185

체나콜로 10월 미사(매월 셋째토)

성모신심미사와 기도모임에 마리아 사제
운동 회원과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10.19(토) 10:00, 삼덕성당
대중교통, 공용 주차장 이용
문의: (010)9366-9170

43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연수

설명회: 10.12(토) 14:00~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가족, 성인&대학생
내용: 청소년가족캠프, 여학연수&해외봉사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2.27 2025년 히년 이탈리아 / 560만원
1.20 멕시코 과달루페 / 570만원
1.20 베트남 중부 / 185만원
문의: 428-5004 / www.cttour.org

칠곡가톨릭병원 보험공단검진

6대 암검진(북구 유일 폐암검진)
및 종합검진
저선량 CT 추가 도입 / 당일촬영 가능
문의: 320-2061 (8:00~17:00)

제3회 혼인성소 발견하기

일시: 12.15(일) 10:30~17:00
장소: 부산가정성당(초량동)
대상: 미혼자 34~46세(1990~1978년생)
접수: 선착순 남녀 각 30명(가톨릭 신자)
문의: 부산교구가정사목국, (051)441-3501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운전기사회에서는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10)4566-6476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목장 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자연순례: 11.7~9 / 11.21~23 / 12.6~8
연말연시특별피정(한라산): 12.29~1.1
문의: (02)773-1455 / (064)796-4182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장소: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 120만원
문의: (010)3645-9028

익산 성클라라봉쇄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주님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계좌: 국민은행 753501-01-480346
예금주: (재)천주교유지재단
문의: (010)6680-0692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142 (죽전역 3번 출구)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이 중 하(스테파노) 신부
TEL 053)615-4871

임마누엘 카톨릭결혼정보

50년 전통 최고의 성혼물
신앙을 바탕으로 최고의 만남 주선
부모님 상담 환영 / 늦은 초혼 전문
☎ 02)757-3343
이 수산나
명동성당 앞 태흥빌딩 808호

코리아알트만
41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탈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백합식품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백합 매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 본사 053)857-2037
서울 02)2202-8392
대구 053)257-1771

병의원·치과 마케팅

대표 **더존보청기** 오티콘 전국판매 1위
대행 **매수면이비인후과** 수면다원검사 중점
김광문(양드레)
안과·피부과·성형외과·치과·정신과·정형외과
디딤패드 1544-4080
김 난영 (에스텔)

목,허리,어깨,무릎 통증치료전문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 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 일 치 (안드레아)
진료과목: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동구 이영로 46 [신일동214-4] 2층 Tel 053 954 7582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 교구 | 대리구 알림 ■

10월 임신부 축복미사

일시: 10.11.(금) 10:00~12:00

장소: 성모당

대상: 임신부 (매월 참석 가능)

진행: 기도모임 및 축복 미사

신청(필수): 가정복음화국, 250-3077

바이블31 성경통독 캠프

기간: 10.26(토)~27(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05년생~85년생 신자 청년

신청: www.jesusclub.or.kr/dcy2030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교구 법원 공시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최종숙(안젤라)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3대리구 청년신앙학교

기간: 10.26(토)~27(일), 앞산 청소년수련원

마감: 10.15(화) 17:00

문의: 3대리구청 사무실, 641-5678

가천성당 사무장 채용

업무: 본당 사무 전반 및 시설관리

자격: 가톨릭신자, PC활용 능숙자,

60세 미만 /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추천서

문의: (010)8501-4026

옥수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60세 이하 열심한 신자

마감: 10.31(목)까지

내당성당 성전복원 기념 가을축제

기간: 10.12(토)~27(일)

김종숙(요안나)도예전: 10.13(일)~27(일)

국악연주회: 10.12(토) 19:30

가톨릭남성중창단모데스트: 10.18(금) 20:00

친환경농산물장터: 10.27(일) 9:00~

■ 시설 | 기관 | 단체 알림 ■

학교법인선목학원 중등 교원채용

(1차시험 교육청유탁)

원서접수: 10.14(월)~18(금)

홈페이지 참조: www.dgsunmok.or.kr

2025학년도 백합어린이집 입학 설명회

일시: 10.23(수) 10:30

장소: 백합어린이집 강당

대상: 2022년생~2019년생 영·유아 학부모

문의: 256-6862

교구 여성위원회 미혼모 돕기

박영봉 안드레아 신부님 사진 초대전

봉봉 신부의 보물창기 3탄(제주도 편)

기간: 10.4(금)~16(수)

장소: 갤러리1981(교구청 내)

문의: 254-6115

울릉도 천부성당영성센터 순례 숙소

조용한 침, 묵상, 경관 좋은 곳

필수: 미사참여, 기도생활

개관: 매년 4.1~10.31

홈페이지: 천부성당 영성센터 검색

예약문의: (010)4097-0090

제23회 가톨릭사진가 회원전

1차: 10.8~10.13 / 교구청 내 안익사

2차: 10.15~10.20 / 4대리구청 강당

문의: (010)3530-1217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 프로그램

14차 색신주말: 10.12(토)~13(일)

413차 ME주말: 10.25(금)~27(일)

414차 ME주말: 11.22(금)~24(일)

장소: 한티피정의 집 / 983-0521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 가능

대구성령채신봉사회(반석)

청장년 성령묵상회

기간: 10.25(금) 18:00~27(일) 17:00

장소: 고령월막 성령회관 / 14만원

대상: 신앙성장을 갈망하는 청장년신자

(40대) / 접수: (010)7252-3040

대구맨발가르멜재속회 지원자 모집

첫째 주일 (010)3308-1004

첫째 월요일 (010)4525-2467

넷째 주일 (010)3307-5772

넷째 월요일 (010)8587-7683

대상: 만 19세~ 55세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옥(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관 절 · 척 추 중 점 진 료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T. 555-5520 죽전역 5번 출구

대구 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BILGOK CATHOLIC UNIV. CHILGOK CATHOLIC HOSPITAL
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산부인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치과
건강검진센터 | 응급실 24시 운영
대구 북구 유림역 명진가린
진료 예약 및 문의 | ☎ (053) 320-2500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도안김연내과
주·야간 혈액투석 만성질환
국가 검진 위대장내시경
원장 도원석(베드로) 김아림(안나)
대구 서구 팔달로 152. 4층 지하주차장완비
3호선 팔달시장역, 팔달신시장 맞은편
외래검진 053)357-7400 신장실 053)357-7500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SINCE 1975 **백두병원**
대구 경북 최초 스트라이카사
마코 무릎인공관절수술 로봇 도입
척추 양방향 내시경술
신경외과 장현동 원장 초빙
정형외과 전문의 백억두(아오스님), 배상근(베드로), 김원호, 임승환
신경외과 전문의 장현동,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상영(미카엘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 유천치안센터 옆
053-425-5919

강한
속내과유외과의원
건강검진센터
위/대장 내시경 | 유방/갑상선/복부 초음파
성인병(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내과 전문의 김만근(라파엘) | 외과 전문의 김민수(라파엘라)
대구 서구 국제보성로 223 대원빌딩 3층 T. 565-7585